소비심리, 6개월만에 하락
집값 · 물가 상승 전망 늘어

5월 소비자심리지수 다시 비관론…경기 · 가계재정상황 관련 모두 하락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비관론'이 다시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경기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이 어두워진 영향이 컸다. 집값과 물가는 현재와 비교해 1년 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로 전월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4월 기준선(100)을 웃돌았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밑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11월(95.7) 이후 6개월 만으로 낙폭은 지난해 7월(-4.6포인트)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CCSI는 가계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한 것이다.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은 과거(2003년 1월~지난해 12월) 평균치보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얘기다.

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지수는 각각 69와 75로 전월대비 5포인트, 6포인트씩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0.5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내려간 91,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3포인트 떨어진 92로 집계됐다.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97로 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1포인트 하락한 109를 나타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경기지표 부진,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와 관련된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물가 상승 우려 등로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과 고용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기회전망 CSI도 80으로 3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하락 전환이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3으로 6포인트 뛰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회복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가수준전망 지수도 전월 142에서 이달 145로 3포인트 올라갔다. 한은은 "최근 환율 상승과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3%로 전월대비 0.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0.1%p 오른 2.2%로 조사됐다.

뉴시스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배우 하정우 작품 전시 LG전자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논현 쇼룸에서 오픈 2주년을 맞아 배우 하정우 씨의 작품을 전시했다. 왼쪽부터 하정우씨,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정우는 이날 행사에서 '주방의 역할(My Life Kitchen: 3E)'을 주제로 한 그림 작품 20점을 선보였다. 전시는 28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미중 무역전쟁 '최악' 되면…글로벌 경제 711조원 피해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피해액이 약 6000억달러(약 711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 댄 핸슨과 톰 올릭이 미중 무역전쟁의 최악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전면적 관세부과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는 2021년에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이전에 비해 총 6000억달러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6월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핸슨과 올릭의 분석에 따르면, 위와같은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미국의 GDP는 이전에 비해 0.2%, 중국은 0.5%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미국과 중국과 나머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엔, 2021년 중반쯤 미국의 GDP는 0.5%, 중국은 0.8%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글로벌 GDP는 0.5% 하락이 예상된다.

2021년 중반쯤 중국 GDP 0.8%, 미국 0.5% 추가하락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은 대만 · 한국 · 말레이시아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25%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엔, 2021년 중반 미국 GDP는 0.7%,중국은 0.9%, 글로벌 GDP는 0.6% 떨어질 것으로 핸슨과 올릭은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곤두박질치면서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의 또다른 경제학자 메이바 커즌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를 꼽았다. 대만 GDP의 약 1.6%가 중국의 대미수출과 연관돼 있고, 한국은 0.8%, 말레이시아는 0.7%가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4.36%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돼,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다른 품목들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평가됐다. 금속제품 경우 1.36%,화학제품 및 비금속 제품의 1.32%가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연일 상승세…"가상화폐 겨울 끝났다"

28일 오전 현재 빗썸에서 1044만원 돌파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가상화폐의 혹한기가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7일 전일 대비 10%나 상승해 8942.5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내 최고 기록이다. 비트코인은 5월에만 약 70% 상승했고, 올해들어는 약 140% 올랐다.

또다른 가상화폐인 라이트코인 역시 27일 13%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90% 이상 상승했다. 이더리움도 8% 이상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는 약 110% 상승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8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104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같은 추세에 대해 지난 2017년말 가상화폐의 붐이 일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블록애셋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는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가상화폐의 겨울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기관투자자들과 벤처캐피털펀드의 수요가 늘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것이다.

취업계수 6.2명으로 '뚝'…하강하는 고용창출력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가 평균 6.2명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고용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취업계수는 전체 평균 6.2명으로 5년 전인 2010년(6.8명)에 비해 0.6명 하락했다. 취업계수는 명목금액 기준 10억원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수치로 통상 고용창출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고용표는 5년 마다 발표되는 산업연관표에 맞춰 작성된다.

취업계수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00년 평균 13.7명에 달하던 취업계수는 2005년 10.1명, 2010년 6.8명, 2015년 6.2명으로 내려갔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록 취업계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 발달과 생산시스템 자동화,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커지면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취업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의 고용창출력이 큰 폭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 취업계수는 9.8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내려갔다. 서비스 산출액 비중이 큰 폭 늘어난 데에 비해 취업자수가 덜 늘어난 영향이다.